

보도시점 2025. 12. 2.(화) 배포 2025. 12. 2.(화)
현장방문 시작 (14:30) 이후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위한 인천시 현장 점검

- '26년 3월 전국시행에 앞서 인천 부평구와 인천시청 방문, 추진상황 점검 -

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일(화) 오후 2시 반, 인천시 부평구 소재 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”을 방문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.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「의료·요양 통합돌봄 사업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.

「의료·요양 통합돌봄 사업」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*로 ‘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’을 위해 시·군·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.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**에 참여하고 있으며, 2026년 3월에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돌봄통합지원법)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.

* 국정과제 78번 ‘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’

** '23.7월부터 실시, 229개 지자체 참여 중 (예산지원형 12개소, 기술지원형 217개소)

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'26.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.

인천시 내 10개 구·군은 모두 '25.9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, 조례제정, 통합지원체계 구축,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.

인천 부평구는 '25년 1월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 하나로 지역 전문가, 복지관, 병원,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. 아울러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·요양·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, 지역 우수사례 발굴·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, 전 지자체가 '26.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이스란 제1차관은 “지방정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본 사업을 준비해 달라”라고 당부하면서, “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력·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,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- <붙임> 1. 의료·요양 통합돌봄 사업 인천시 현장방문 개요
2. 의료·요양·돌봄통합 제도 개요
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단	책임자	단 장	장영진 (044-202-3030)
		담당자	팀 장	박준형 (044-202-3041)
			사무관	윤종현 (044-202-3044)

□ 개 요

- (목적) 인천시 부평구 의료·요양 통합돌봄 사업현장 방문 및 인천광역시 통합돌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
- (일시/장소) '25.12.2.(화), 14:30~16:40 /
인천 부평구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, 인천시청

일정 구분	인천 부평구 사업현장 방문	인천시청 방문
장소	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(인천 부평구 경인로1104번길 10)	인천시청 행정부시장 집무실 (인천시청 본관)

- (주요참석자) ^{복지부}제1차관, 복지행정지원관,
인천시청 행정부시장, 여성가족국장, 보건복지국장,
인천 부평구 부구청장, 복지국장, ^{민간}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등

□ 주요 일정

시 간		내 용	장 소
① 부평구 사업현장 방문			
14:30 ~ 14:40	5'	• 참석자 소개	평화의료사회적 협동조합
	5'	• 인사말	
14:40 ~ 14:45	5'	• 부평구 및 『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』 통합돌봄 사업현황 보고	
14:45 ~ 15:00	15'	• 지자체 및 현장 업무담당자 건의사항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	
15:00 ~ 15:10	10'	• 『협동조합』 현장 라운딩	
15:10~15:15	5'	• 마무리	
15:20 ~ 16:00	40'	• 이 동 (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→ 인천시청 본관)	차량이동
② 인천시청 방문			
16:00~16:05	5'	• 참석자 소개	인천시청
		• 인사말	
16:05~16:15	10'	• 인천시 통합돌봄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	
16:15~16:35	20'	• 참석자 등 간담회 - 시군구 현장 애로사항 청취	
16:35~16:40	5'	• 마무리	

붙임2

의료·요양·돌봄통합 제도 개요

◆ '26.3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전면 시행
 □ “수요자 중심의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 서비스” 전국 적용

- (목적)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*하도록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를 통합·연계하여 제공
 - * 살던 곳 거주희망(87.2%),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(48.9%) <'23. 노인실태조사>
- (대상자) 노쇠·장애·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,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
 - * 최소 246만명(노인 128만명, 장애인 118만명) + α
- (절차*)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,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全过程수행
 - * ①신청→②조사·종합판정→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→④서비스 제공→⑤모니터링
- (지원내용) 보건의료(재택의료, 방문간호 등)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(가사·이동·식사 지원 등),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

【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】

